

専門醫에 듣는다

## 유행성 독감은 예방이 중요



김주 교수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대개 11월~4월)에 유행하는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은 일반적인 감기(리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RS 바이러스 등에 의해 유발되는 감기)와는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전염병으로 증상이 아주 심하고 전염성이 강하여 단 시일 내에 유행한다.

유행성 독감의 증상으로는 1~5일의 잠복기를 거친 갑작스런 발열(38~40도)과 두통, 오한, 인후통, 미분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과 장기간 지속되는 근육통, 국도의 불쾌감, 전신쇠약 등이 있으며, 일단 유행성 독감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이 기침을 할 때 앞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관지 손상을 통한 이차적 세균 감염으로 “세균성 폐렴”에 걸리게 되어 병원에 입원치료하게 됨은 물론, 만성질환에 있는 노인의 경우 중태 등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유행성 독감은 기침, 재채기를 통하여 사람에서 사람으로 매우 잘 전염되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 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3~7일 정도 전염력이 있다.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감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다.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한 성인 및 소아에게는 70~90%의 효과가 있고,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있는 사람에게는 약간 떨어진 30~40%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입원을 줄이고, 유행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꼭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임산부 역시 유행성 독감으로 인한 호흡곤란, 폐렴의 합병증에 발생했을 경우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고, 50~64세 성인도 상당수가 독감에 걸렸을 때 입원 또는 사망에 이를 위험에 놓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을)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유행성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속적인 변이를 통하여 항원성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개발된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청결이다. 특히 우리가 늘 사용하는 손은 많은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양말 신은 발보다 더 더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 더욱이 이 손으로 코를 풀거나 훔치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묻게 되며 손의 접촉을 통하여 타인에게 독감을 전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손의 청결은 유행성 독감 뿐 아니라 많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양치질 등을 통해 온 몸을 깨끗이 해야 유행성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진료안내 : ☎ 02)818-6648

##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 동 정

## ◆ 김세옥 회원 (前 경찰청장)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 회원은 최근 광주지할시에 소재한 조선대학교 개교 59주년 기념식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 ◆ 홍병식 회원 (前 경무관)



지난 9월 24일 100세를 맞아 자축연을 가졌다.

홍 회원은 현직 시절 경기, 경남, 강원경찰국장을 역임하는 한편 퇴임후에는 서울시 산업국장과 대한적십자 청년부장으로, 지난 67년에는 경우회 종로 지회장으로 재직하며 「유실물 찾아주기 센터」 설립 운영, 「새집 달아주기 운동」 등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99년에는 제1회 경우봉사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 신동호 회원 (기능 경우회장)



지난 2003년부터

성동구 문화원장직을 맡아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정서함양에 앞장서 왔던 신 회원이 최근

문화원장 이임식을 가졌다. 신 회원은 경찰 퇴직후 줄곧 경우회 무궁화 악단을 이끌며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을 비롯, 자신의 활동지역인 성동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선도와 지역지인활동을 돋는 제2의 치안역군으로 일해 왔다.

## ◆ 춘수회(강원청과 춘천서 근무 전현직 모임), 警友新聞 구독에 앞장

## 전국 警友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 기대

현직시절 강원경찰청과 춘천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근무했던 警友들의 모임인 춘수회가 경우신문 구독에 앞장서고 있다. 류연종 회장을 비롯한 춘수회 회원 일동은 『경찰의 숙원이자 가장 큰 현안인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120만 경우들의 결집된 의지를 바탕으로 경우신문을 통해 승화되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전현직 상호간의 균형을 바로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40명 회원의 뜻을 모아 경우신문 40구좌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번 우리 춘수회의 큰 결단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국의 경우들에게 확대되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수회는 지난 94년 그 결성을 본 이후 仁·禮·義를 넥목으로 정하고 전현직 회원 49명이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모임을 갖고 상호간의 유대의장을 마련해 오고 있는데, 그간 격무에 수고하는 춘천경찰서 기동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년 3회 내지 4회에 걸쳐 춘천 인근 등산로 쓰레기 수거로 자연보호 활동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의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온 것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현직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 오철선 회원 (前 경우회 사업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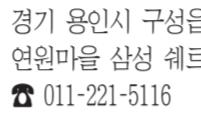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 회원은 최근 러시아 연해주 방문에 이어 2개월간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일대 및 백두산 등지를 둘러 보고 귀국했다.

한편 오 회원은 일정 도중 연변대학

교에서 문학강의를 갖는 한편 연변작가협회와 한국문인협회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절차를 논의하기도 했다.

## 주 소 변 경

## ◆ 조동규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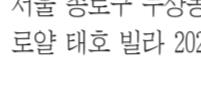


경기 용인시 구성을 마북리 624번지

연원마을 삼성 쉐르빌@ 201동 102호

☎ 011-221-5116

## ◆ 이봉학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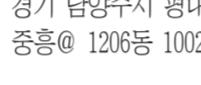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누상동 59번지

로얄 태호 빌라 202호

## ◆ 백은종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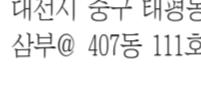


경기 남양주시

평내마을

중흥@ 1206동 1002호

## ◆ 박한교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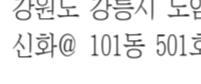


대전시

중구 태평동 393번지

삼부@ 407동 111호

## ◆ 이인수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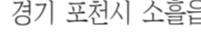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신화@ 101동 501호

## ◆ 홍병선 회원



경기 포천시

소흘읍 고모1리 103번지

## ◆ 이원호 회원

서울 강남구 포이동 189-2

한농빌라 A동 204호

## ◆ 강철진 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606동 2504호

## ◆ 염국현 회원

경기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신한 인스빌@ 204동 1804호

## 결 혼

## ◆ 박창길 회원 (경우회 기획조정위원장)의 차녀 민원양이 오는 10월 21일 오후 6시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 3층에서

## ◆ 남궁양 회원 (前 인천중부경우회장)의 3녀 옥 양이 지난 9월 24일 경기 수원 수립공원 예식장에서

## ◆ 이동옥 회원의 장남 승태군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강남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 웨딩홀에서

## ◆ 유태준 회원 (경우산악회)의 차남 규동군이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사당동 웨딩의 전당 그랜드 홀 2층에서

## ◆ 배희선 회원 (前 전북청장)의 모친 최상달 여사가 지난 9월 7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83세

## ◆ 홍순복 회원 (前 인천합천경찰회장)이 지난 10월 1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87세

## ◆ 남현우 총경 (경남 진해서장)의 모친이 지난 9월 20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86세

## ◆ 조병효 회원 (前 총경)이 지난 10월 3일 숙환으로 별세.

## 모 임 안 내

## ◆ 경전 2기

윤일균 회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전본과(후보생) 2기생은 오는 10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을지로 6가 국립의료원 후정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안 클럽에서 10월 분기회 모임을 개최하고 회원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당면현안을 논의한다. 한편 경전 2기생 모임은 지난 5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결산을 갖는 한편 신입 임원들을 선출했고, 전현직 경우회원들의 유일한 소식지인 경우신문 구독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총무 : 박삼달 ☎ 02-417-2832)



구홍일 경우회장은 지난 9월 29일 전국 각급회 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경우회와 전북경찰청, 그리고 정부 및 고창지역회와 경찰서를 방문하고 경우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경우회와 지방경찰청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현직 경우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현직간의 회합을 도모했다.

## 基金 20억원 모으기 운동 적극 추진키로

## 경우장학회 이사회, 임기만료 이사 4명 재선출



경우장학회는 최근 경우사랑방에서 문학동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 2차 임시 이사회를 갖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 4명을 재선출 하는 한편 당면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문학동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우장학회가 매년 경우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우현 경우산악회장 留任  
자연보호활동 겸한 정기총회 개최

경우산악회는 최근 경우사랑방에서 문학동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 2차 임시 이사회를 갖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 4명을 재선출 하는 한편 당면현안을 협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황호한, 최재진, 박종순, 박옥자 이사를 재선출 하는 한편 기금 20억원 모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 야단역에 집결하여 정해진 등산로를 따라 어깨띠를 하고 비닐봉지를 들고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했다.

한편 이날 한식당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업무를 결산하고

임기가 만료된 김우현 회장, 백미현 부회장, 사일진 감사를 모두 만장일치로 유임시키고 조직의 활성화를 다짐했다.

새롭게 개편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김종수 김한문 박영용 안영균 오병남 오형기 이기영 이희명 전덕선 최현근 하대락 김진홍 권호영 김명옥 유태준(무순임)

이날 오전 10시 참석 회원들은 분